

2008. 1. 21 제183호

세계도시동향

세계도시

2008. 1. 21 제183호

목 차

[벤치마킹 사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市の 관광용 지류(支流) 운하

[해외출장 리포트]

일본 수도권 규제법 폐지

도시경영·경제

1. 외자 유치를 민간조직인 'Think London'에 맡겨 (런던)
2. 월요일 오후에는 예약 없이도 시장을 만날 수 있어 (캘리포니아州 소노마市)
3. 택시 외부광고 금지...내부의 TV 방송을 통해 광고 (브라질 상파울루市)
4. 불법 체류자 고용 '원천봉쇄' (도쿄)
5. '과학도시'에 투자하세요 (북아일랜드)

디지털도시

6.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에 무선으로 접속 (캘리포니아州 마운틴뷰市)

목 차

복지·문화

7. 상업과 문화의 활성화로 지역 '업그레이드' (파리)
8. 가정폭력범 '꼼짝마' (일본)
9. 민관이 함께 낙후된 남부지역 살리기에 나서 (로스앤젤레스)

도시환경

10. '어린이 ISO 14000' 보급 (도쿄)
11. 주택 앞마당의 콘크리트 '퇴출' (캘리포니아주 롱데일시)
12. '에코 챔피언'이 지속가능한 런던을 이끈다 (런던)
13. 민관의 지구온난화 방지사업 지원 (런던)
14. 상업용 건물에도 CO₂ 저감계획 확대 적용해야 (영국)
15. 미래 도시환경의 새 청사진, '그르넬 환경 계획' 발표 (프랑스)
16. 대기오염 정보를 알려면 애드벌룬을 보세요 (파리)
17. 페트병은 이곳에...자동회수기 설치 (도쿄도 아다치區)

도시교통

18. 버스로 출퇴근하는 공무원에게 무료 승차권 지원 (시애틀)
19. 출퇴근 시간대 차량의 도심 진입 규제 강화 (브라질 상파울루시)
20. 자전거 전용도로 유지·관리를 기업에 맡겨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시)
21. 자전거도로와 보행로를 대폭 늘려 (영국)

도시계획·건설·주택

22. 마을 만들기 '가이드라인' 마련 (도쿄)

[벤치마킹 사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市の 관광용 지류(支流) 운하

<주요 내용>

- 파리市에서 동쪽으로 약 400km 떨어진 스트라스부르市는 독일 국경에서 3km 정도 떨어진 일(I'ILL) 강 연안에 있음. 라인강·론강·마른강을 연결하는 운하의 합류점으로, 큰 하항(河港)이 있는 도로·철도 교통의 요충지임.
- 스트라스부르市의 '라 프티트 프랑스'(La Petite France) 지역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돼 있는 일강의 작은 섬으로, 지류(支流) 운하의 활용도가 매우 높음.
 - 지류운하는 본 운하에 연결된 작은 운하를 뜻함. 일강은 라인강·론강·마른강 운하와 연결된 지류운하로, 스트라스부르市는 이를 활용해 관광객 유치에 힘쓰고 있음.



스트라스부르市 근처 일강(왼쪽)과 라 프티트 프랑스 지역의 지류운하 수문(오른쪽)

- 라 프티트 프랑스 지역을 지나는 지류운하는 관광객의 유람선 투어에 활용됨. 유람선을 타고 운하 주변의 스트라스부르 대성당이나 박물관 같은 문화 유적은 물론 유럽의회(EU) 건물을 한눈에 볼 수 있음.
 - 배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배를 대형 수조인 갑실로 들어오게 한 후 수문을 닫고 높은 쪽의 강물과 높이를 맞춘 다음 수문을 열어 통과시켜야 함. 이것이 관광객에게 볼거리가 됨.

- 운하에 놓인 20여 개의 작은 다리가 주변의 옛 목조 건물과 조화를 이뤄 경치가 매우 아름다우며, 관광객을 끌어 모으는 중심 역할을 함.
- 다리 또한 높이가 각각 달라 일부 다리 아래를 배가 지나도록 하기 위해 다리를 서서히 움직여 배가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듦. 그런 다음 배가 좁은 운하를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감. 유람선을 타고 이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에게는 흥미로운 볼거리임.



- 우리나라 유원지에서 운행하는 코끼리 열차처럼 좁고 긴 미니트램(Minitram)을 운하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음. 미니트램은 라 프티트 프랑스 지역을 운행하며, 일반 차량이 지나다니기 어려운 좁은 골목길을 약 30분 동안 누비면서 운하의 주변 경치를 즐길 수 있도록 함.
- 다국어로 된 안내방송과 좁은 골목을 능숙하게 운전하는 운전기사의 숙련된 솜씨, 주변 상인의 정겨운 모습이 관광객에게 즐거움을 제공함.



- 관광객은 운하 주변에 형성된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 주변을 돌면서 레스토랑과 호텔, 문화유적, 기념품 및 특산품점을 둘러볼 수 있음.

<해설 및 평가>

- 유럽의 운하는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짐. 일부 오래된 운하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쇠퇴기에 접어들어 현재는 관광용으로만 활용되고 있음.
- 스트라스부르市の 라 프티트 프랑스 지역을 지나는 지류운하는 화물을 실어나르는 대운하와는 달리 관광용으로 활용되고 있어 스트라스부르市の 역사 문화 전통을 한눈에 볼 수 있음.
 -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모습을 관광객에게 보여주는 등 지류운하를 화물 이동수단이 아닌 관광용으로 활용한 것이 이 운하의 성공요인임.

<서울시정의 현황과 문제점>

- 현재 서울시는 한강을 서울의 발전과 통합의 원동력으로 보고 ‘한강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서울을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고자 하고 있음.
- 한강 대운하 사업의 일환으로 한강 하류 행주대교 아래에서부터 인천 영종도 부근 서해에 이르기까지 길이 18km, 폭 100m, 수심 6m의 물길을 뚫는 주운(舟運) 수로 사업이 논의 중임.
 - 이 계획이 시행되면 인천터미널(약 284만㎡), 서울터미널(약 185만㎡), 주운수로 양변의 4차로 고속도로와 화물 전용도로 등의 부대시설이 조성될 예정임.
- 한강 주변으로 불광천, 홍제천, 안양천, 청계천, 중랑천, 양재천, 탄천이 연결돼 있음. 하지만 한강 개발계획과는 달리 지천의 활용도는 청계천을 제외하면 자전거도로의 연결이나 주민의 산책공간 조성 등에 그쳐 있는 수준임.

<벤치마킹 시행방안>

-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시행된다면 이의 관광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화물의 흐름과 관광객의 흐름이 구분돼야 함.
- 운하를 통해 관광의 파급효과를 높이는 방안으로 경인운하를 개발할 경우 한강과 연결돼 있는 지천을 지류운하로 개발해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한강 주변의 불광천, 홍제천, 안양천, 청계천, 중랑천, 양재천, 탄천을 중심으로 수변공간을 재조성해 소규모의 근거리 유람선을 설치함.
-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운하 관련 볼거리를 제공해 관광객 유치에 적극 활용하고, 주변 문화 자원과 연계해 지역 관광루트로 개발함.

<벤치마킹 기대효과>

- 경인운하 개발 시 지천을 지류운하로 만든다면 경인운하의 관광효과를 극대화하고 한강을 중심으로 한 서울시의 개발계획 효과를 높일 수 있음.
- 지류운하의 수변지역 개발을 통해 관광객을 늘리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음. 친환경적인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한강의 수질을 향상하고 장마철 홍수 피해를 줄일 수 있음.
- 경인운하 개발 시 화물운하와 관광운하를 구분하면 운하의 활용도뿐 아니라 관광효과와 물류효과를 높일 수 있음.

/반정화 도시경영부 부연구위원(jhpan@sdi.re.kr)

[해외출장 리포트]

일본 수도권 규제법 폐지

<출장 개요>

-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07년 8월 29일~9월 4일 일본 국토교통성, 도쿄都, 사이타마縣, 오사카市를 방문해 일본 대도시권 계획 체계의 변화와 계획내용을 조사함.

<주요내용>

- 일본의 ‘공업재배치촉진법’, ‘공업(장)등제한법’(수도권의 기성 시가지에서 공업 등의 제한에 관한 법률), ‘공장입지법’을 ‘공장제한3법’이라고 함. 이 법들은 산업과 인구의 과도한 집중과 이에 따른 심각한 공해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1959~1973년에 제정됐음.
 - 일본정부는 이에 따라 수도권의 기성 시가지에 공장 등의 신·증설을 제한함으로써, 공업 집중도가 낮은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도록 하는 공업 재배치 촉진 정책을 실시해 왔음.
 - ‘공장제한3법’ 외에 ‘新산업도시건설촉진법’, ‘공업정비특별지역정비촉진법’ 등 관련 법률도 시행돼 왔음.
- ‘공업(장)등제한법’ 제정 당시와는 달리 현재는 소프트화·정보화·국제화를 배경으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주력산업이 바뀌고 있음. 공장의 생산 기능을 해외로 이전하는 등 산업구조가 크게 변화하고 있고, 저출산 현상에 따라 대학을 둘러싼 제반 상황도 크게 변했음.

- 산업과 인구의 과도한 집중 방지를 목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과 대학 등의 신·증설을 규제한다는, 즉 경제·사회활동의 자유를 억제한다는 정책 목표의 유효성과 합리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2002년 7월을 기해 ‘공업(장)등제한법’이 폐지됨.
- ‘新산업도시건설촉진법’과 ‘공업정비특별지역정비촉진법’의 경우, 산업인프라를 정비해 중후장대형 산업을 유치한다는 의의가 상실됐기 때문에 2001년 4월 폐지됨.
- 수도권을 이전 촉진지역으로 규제해 오던 ‘공업재배치법’은 ‘공업(장)등제한법’ 폐지 이후에도 존속돼 왔으나, 공업 재배치라는 발상이 현재의 경제상황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2006년 4월 폐지됨.
- 현재는 ‘공장제한3법’ 중 ‘공장입지법’만이 존속함. 이 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에 대해 녹지 및 환경시설 확보를 의무화한 법률이라, 입지 규제 성격이 없음.

<시사점 및 정책제언>

- 일본의 ‘공업(장)등제한법’ 등의 폐지는, 아직도 수도권 대 비수도권이라는 비합리적인 이분법으로 수도권에 공장과 대학의 신·증설을 규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수도권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큼.
- 대도시권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계적으로 초광역 대도시권을 형성하고 있는 시대적 조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우리나라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서울 및 수도권에 대한 비효율적인 규제 위주의 수도권 정책을 개선해야 함.

/이주일 수도권정책센터장(leejay@sdi.re.kr)

1. 외자 유치를 민간조직인 ‘Think London’에 맡겨 (런던)

○ 비영리 민관파트너십 조직인 ‘Think London’은 런던개발청과 재계약해 3년간 런던시의 공식 외국인 투자 유치조직으로 계속 활동하기로 함.

- Think London은 치열한 입찰 경쟁을 통해 ‘외국인 직접 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유치담당 조직으로 계속 활동하게 됨.
 - 앞으로도 신규 외국업체에 관련 부동산·입지·인재 정보를 제공하고, 외국 업체가 기업활동을 통해 이익을 최대한 낼 수 있도록 지원함.
- Think London은 런던시와 파트너십을 처음 맺은 1994년부터 지금까지 100여 개 신규 외국업체를 유치함.
 - 총 36개국 1000여 개 업체에 상담·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왔음.
 - Think London은 런던개발청 외에도 런던 경제인연합회, 영국 경제인연합회의 사업파트너임.
- 런던시는 2007년을 포함해 ‘유럽에서 사업하기 좋은 올해의 도시’로 17번 선정됐음.
 - 2005년에는 경쟁도시인 파리시보다 20% 더 사업을 수주했음.
- 최근 런던개발청은 ‘해외투자 유치 전략’(Inward Investment Strategy)을 통해 런던시 경제발전에 필요한 주요 해외투자 유치 분야와 목표치를 정함. Think London은 계약기간 동안 이 목표치 달성에 주력해야 함.
 - 계속 투자를 유지해야 하는 사업분야로는 금융, 신규 유치에 주력해야 하는 사업분야로는 창조산업·환경기술·생명과학이 선정됨.

(www.lda.gov.uk/server/show/ConWebDoc.2296)

(www.thinklondon.com)

>>> 전문가 검토의견

- 런던시가 민간조직을 통해 외국인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투자를 유치하도록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민간부문의 전문성과 유연성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함.
 - 우리나라에서는 코트라(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INVEST KOREA'가, 경기도에서는 도청 내 전담조직이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음.
 -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인·허가 등 법률적인 행정 편의를 제공하거나 입지 선정 및 공장 건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조직이 주체로 나서는 것이 바람직한 면도 있음.
- 서비스 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 규제와 수도권 개발 규제 등으로 서울시는 외국인 투자를 대규모로 유치하기 어려움.
 - 런던개발청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서울시가 외국인 투자 유치 업무를 맡겼지만 큰 성과는 없었음.
- 금융산업, 문화산업, 정보산업, 생명과학, 환경기술 등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울시가 이 분야에서 국제적인 강점을 가져 외국인이 투자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서울시는 런던시에 비해 국내 투자 여건과 산업 여건이 성숙하지 못하고 국제 경쟁력이 약한 상태임. 상설로 민간부문을 활용하기보다는 외국인 투자자가 나타나면 서울시, 중앙정부, 관련 기업이 협력해 개별 사안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윤형호 도시경영부 연구위원(younh@sdi.re.kr)

한줄 뉴스

- 캘리포니아주 포웨이시, 저소득층을 위한 태양열에너지 아파트 단지 'Solara' 완공
-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시, 브라질에서 최초로 가정폭력 전담 재판소를 '여성의 날'인 2008년 3월 8일 개소할 계획

2. 월요일 오후에는 예약 없이도 시장을 만날 수 있어 (캘리포니아주 소노마市)

○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노마市는 시민이 자신의 민원과 市의 여러 현안을 주제로 시장과 1대 1로 만나 상의할 수 있는 시장 면담시간을 발표함.

- 면담시간은 매주 월요일 오후 3~4시며, 공휴일은 제외됨.

·면담시간에는 시민이 시청 회의실에서 예약 없이도 시장을 만날 수 있음.

- 한꺼번에 면담자가 몰리지 않는다면 시장과 시민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로 기대됨.

(www.sonomacity.org/default.aspx?Pageid=81&bselected=true&Index=2)

3. 택시 외부광고 금지...내부의 TV 방송을 통해 광고 (브라질 상파울루市)

○ 브라질 상파울루市 택시업자들이 택시에 전용 TV를 설치하기 시작함. 택시에 TV 설치를 추진하는 회사 '택시 매니아'는 2007년 12월까지 택시 1000대에 TV를 설치하고, 25분짜리 패션·여행·미용 정보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음.

- 택시 매니아는 2008년부터 택시 3만 6000대에 TV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음.

- 택시 TV가 '깨끗한 도시법'에 저촉되지 않는, 새로운 광고 수단으로 이용될 것으로 기대됨.

·'깨끗한 도시법'에 따라 택시 외부에 광고물을 붙일 수 없었는데, TV를 통해 광고를 방영함.

·택시업자가 택시 TV 광고수입의 일부를 市에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시정부의 수입도 증가하게 됨. 현재 버스 안에 설치된 버스 TV와 지하철 광고수입 중 매년 약 100만 헤알(약 4억 원)이 市 수입으로 들어옴.

(www.taximania.com.br/novidades_tvtaxi.asp)

4. 불법 체류자 고용 ‘원천봉쇄’ (도쿄)

○ 도쿄都는 최근 불법 체류자의 고용을 막기 위해 사업주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고용 매뉴얼’을 만들.

- 일본에서 불법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2007년 1월 현재 약 17만 명(법무성 발표)이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은 불법 입국자까지 고려하면 약 20만 명 정도로 추산됨.

- 2007년 10월 1일부터 외국인 고용상황 신고제도가 변경됨.
· 모든 사업주는, 외국인 노동자가 고용되거나 이직할 때 노동자의 이름, 체류 자격, 체류 기간을 ‘헬로 워크’(Hello Work) 시스템에 신고해야 함.

- 외국인 노동자 고용 매뉴얼은 사업주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때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지 않도록 외국인 등록 증명서 확인방법, 체류 자격에 따른 취업가능 여부 확인 절차, 직종에 따라 고용가능한 체류 자격의 종류 등을 담고 있음.



외국인 노동자 고용 매뉴얼

(www.koho.metro.tokyo.jp/koho/2007/12/koyoum.htm)

5. ‘과학도시’에 투자하세요 (북아일랜드)

○ 북아일랜드(Northern Island) 정부는 외국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벨파스트(Belfast)市와 데리(Derry)市를 ‘과학도시’로 지정해야 한다고 최근 발표함.

- 과학도시는 연구대학(Research University) 주변에서 연구개발 및 혁신 전문 기업이 모여 있는 도시를 뜻함.

· 연구대학이란 교육기능과 함께 연구에 비중을 많이 둔 대학으로, 산학협력 대학이 연구대학의 한 유형임.

- 과학도시 지정을 위해서는 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투자 유치가 필요하다고 정부 관계자가 주장함.
- 뉴캐슬市 사례를 소개하면서,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과학도시 지정이 중요하다고 덧붙임.
- 벨파스트市에 있는 ‘사이언스 파크’(Northern Island Science Park) 대표이사는 “혁신은 북아일랜드의 강점이다. 대학을 중심으로 한 과학도시 조성이 중요하며, 현재 많은 비즈니스 커뮤니티가 과학도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함.

(www.regen.net/bulletins/Regen-Daily-Bulletin/News/773985/Science-cities-Northern-Ireland)

디지털 도시

6.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에 무선으로 접속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市)

○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市는 인터넷 검색서비스 회사인 구글(Google)과 5년 계약을 맺고 市 대부분 지역에 무료 무선 인터넷 서비스(Wi-Fi: 전파나 적외선 전송방식을 이용하는 근거리 통신망)를 제공하고 있음.

- 市는, 구글社가 인터넷 수신기를 市 가로등에 설치하도록 승인함.
- 구글社는 2007년 8월 인터넷 수신기 설치를 마치고 현재 무료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인터넷 서비스 이용 강화를 수강한 시민들이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음.

(www.ci.mtnview.ca.us/news/displaynews.asp?NewsID=30)

7. 상업과 문화의 활성화로 지역 ‘업그레이드’ (파리)

○ 파리市가 ‘파리 동부지역 도시정비 공익주식회사’(SEMAEST: Société d’Economie Mixte d’Aménagement de l’Est de Paris)와 함께 침체된 상업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활성화 사업을 펼치고 있음. 최근 라틴구역의 문화산업 특화사업을 파리市 구역 활성화 프로젝트에 포함함.

- 총 6390만 유로(약 865억 원)의 파리市 예산이 SEMAEST의 2차 파리 동부지역 활성화 프로그램에 투입될 예정임. 2차 프로그램에서는 구역의 특성이 강조된 다양한 구역 활성화 사업을 추진함.
 - 12구의 도르닐 펠릭스 구역은 컴퓨터 중심 상가라는 특성을 살려 확장하고, 랑크리와 10구 사이 구역은 의류업종 외에도 다양한 상업활동을 장려함.
 - 5·6구의 라틴구역에 문화 분야 전문업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보존방안을 추진 중임. 특히 라틴구역에 대한 市의 추진계획은 기존의 지역경제 개발계획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임. 상업 활성화방안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 가치를 개발하고 보존하기 위해 서점, 출판사, 예술영화관, 갤러리 등이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
- SEMAEST는 지역발전을 이끄는 상업이나 문화사업 분야 기업을 위해 지역 상업지구 건물을 재매입하거나 재계약함.
 - 이 건물들을 보수한 후 구역 특성에 맞는 입주자를 선정, 바로 입점할 수 있도록 함.
 - 이곳에 입점하는 상인은 권리금 없이 순수 임차료만 지불하면 됨. 경우에 따라서는 SEMAEST가 임차인의 능력에 맞게 임대료를 조정해 줌.
 - 지역상업과 문화 활성화를 위해 문화활동 프로그램도 시행할 예정임.

(www.semaest.fr/semaest)

>>> 전문가 검토의견

- 파리市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966년 7월과 1983년 7월 ‘상업 주식 회사 설립법’에 근거해 총 19개의 공익주식회사(SEM: Société d’Economie Mixte)를 설립함.
 - 파리市가 공익주식회사 지분을 최소 51% 가짐. 공익주식회사는 부동산, 도시 정비 및 재개발,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활동함.

- 이 중 1983년 파리 동부지역 도시정비를 위해 설립된 ‘파리 동부지역 도시정비 공익주식회사’는 2003년 12월 파리市와 도시정비 및 경제개발 협정을 맺음.
 - 구역 활성화를 위해 각 구역의 경관, 상업, 문화, 교육, 사회복지 등의 프로그램 개발함.

- 파리市가 파리 동부지역 도시정비 공익주식회사에 의뢰해 진행하고 있는 ‘라틴지구의 문화가치 개발 및 보존을 위한 정책’은 파리市 골목 문화의 재탄생을 예고함.
 - 중세부터 지성과 문화의 샘으로 알려진 라틴지구가 지난 20년 동안 옷가게와 식당 등이 즐비한 상업적 장소로 변해왔음. 퇴색된 라틴지구의 문화적 정체성을 재복원할 수 있는 기회임.

- 서울시의 경우, 현재 도심정비와 재개발로 도심공간이 대부분 슈퍼 블록화되고 고층 업무용 빌딩숲이 되고 있어, 역사문화 공간뿐 아니라 시민의 삶과 밀접했던 골목 문화가 사라지고 있음.
 - 서울시가 문화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파리市 공익주식회사 성격의 단체를 구성해 도시의 구역별 특성에 맞는 따뜻한 골목 문화 공간을 창조하고 특성 분야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홍석기 디지털도시부 연구위원(skhong@sdi.re.kr)

8. 가정폭력범 ‘꼼짝마’ (일본)

○ 일본에서는 2008년 1월 11일 ‘배우자의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배우자 폭력 방지법)이 개정됨.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 보호 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됨.
·현행 ‘현재 신체적 폭력을 당하고 있고 향후에도 당할 우려가 있는 피해자’에 ‘현재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협박을 받고 있고 향후 신체적 폭력을 당할 우려가 있는 피해자’가 포함됨.
- 가해자가 접근할 수 없는 대상자가 현행 ‘피해자와 그 자녀’에서 ‘가해자가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친족, 지인 등’으로 확대됨.
- 접근 금지 방법으로 현행 ‘6개월간 접근 금지 및 주거지로부터의 퇴거’에 다음 항목이 추가됨.
·면회 요구, 행동 감시, 난폭한 언동, 무언의 전화, 연속적인 전화, 심야 전화(밤 10시~오전 6시, 긴급 시 제외), 팩스 및 이메일(긴급 시 제외), 오물이나 동물의 사체 등을 보내는 행위,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서나 이미지를 보내는 행위 등을 금함.
- 지방자치단체는 배우자 폭력 대책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배우자 폭력 상담 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함.

(www.koho.metro.tokyo.jp/koho/2007/12/haigusha.htm)

한줄 뉴스

<영국>

- 유·청소년 가족부, 2008~2010년 유·청소년과 부모를 위한 활동지원서비스 ‘London Youth Offer’ 프로그램에 런던市와 함께 총 7900만 파운드(약 1500억원) 지원
- 경제발전을 위해 도시계획과 토지 공급을 탄력적으로 해야 하고 토지이용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도시계획 정책 4’ 발표
- 도시재생공사 ‘잉글리시 파트너십’, 브리스틀市에 있는 예전 병원 부지 한함 홀(Hanham Hall) 7만㎡에 이산화탄소 제로 주택 200세대를 짓는 ‘그린 하우스 프로그램’ 시행
- 고용, 범죄, 소득 등의 지표로 침체지수를 산출해, 영국에서 가장 침체한 지역으로 리버풀市 스피크(Speke) 지역 선정

9. 민관이 함께 낙후된 남부지역 살리기에 나서 (로스앤젤레스)

- 미국 로스앤젤레스市 도시연맹(Urban League)은 약 2500만 달러(약 23억 원)의 예산을 들여 5년 동안 집중적으로 로스앤젤레스 남부지역에 'Neighborhood@ work'라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007년 12월 6일 발표함.
- 공·사기관이 협력해 시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로스앤젤레스 남부의 한 고등학교 주변지역의 환경과 복지부문에 집중 지원할 계획임.
- 로스앤젤레스 남부지역은 주택, 의료복지, 일자리의 부족으로 인해 낙후된 지역임.
- 도시연맹은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열어 학생뿐 아니라 교육수준이 낮은 주민에게도 교육받을 기회를 주고, 시민단체와 연합해 의료복지나 주민 건강 문제도 해결할 예정임. 또한 강력범죄가 잦은 이 지역 치안을 위해 경찰과 협력해 범죄율 줄이기에 노력할 계획임.

(www.latimes.com/news/local/la-me-urban7dec07,1,7964303.story?coll=la-headlines-california)

도 시 환 경

10. '어린이 ISO 14000' 보급 (도쿄)

- 도쿄都는 환경교육 및 가정에서의 지구 온난화 대책의 일환으로 'Kids' ISO 14000 입문편'을 도내 초등학교에 보급하고 있음.
- Kids' ISO 14000이란 NPO 법인 '국제 예술·기술 협력기구'가 일본 및 세계 각국에서 전개하고 있는 어린이용 환경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임.
- 국제표준화기구에서 공인받은 이 프로그램은 일본 국내에서는 환경성과 문부과학성, 유네스코 일본 위원회, 해외에서는 유엔대학 등에서 후원을 받고 있음.

- 이 프로그램은 입문편, 초급편, 중급편, 상급편으로 나뉨. 도쿄都가 보급하는 입문편은 일상생활에서 어린이가 환경 매니지먼트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음. 어린이가 직접 2주간 워크북을 완성하는 것임.
 - 1주째에는 가정에서의 전력, 가스, 수도 소비량과 쓰레기 발생량을 조사하고 각 항목별로 감량 계획을 세움.
 - 2주째에는 가족과 함께 감량 계획을 실행하면서 전력, 가스, 수도 소비량과 쓰레기 발생량의 변화를 조사하고 감량효과를 확인함.
 - 2주 후 워크북이 완성되면 ‘에코 키즈 인스트럭터’가 워크북 내용을 보고 평가서를 작성한 뒤 해당 어린이에게 전달함.
- 도쿄都는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참가 학교를 모집하고 워크북 구입 자금과 인스트럭터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모집하고 있음.

(www2.kankyo.metro.tokyo.jp/kikaku/kids-iso/)

>>> 전문가 검토의견

- 환경보전 활동이 효과를 얻으려면 시민·기업·정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임.
 - 오염물질을 관리하는 것뿐 아니라 배출량을 감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환경기초시설과 같은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등 오염물질 관리가 정부의 몫이라면, 배출량을 감소하는 것은 시민과 기업의 몫임.
 -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해 에너지소비를 줄이려면 시민 참여와 실천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함.
- 시민 참여가 성공을 거두려면 시민이 환경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쌓아야 함.
 - Kids’ ISO 14000 프로그램은 어린이에게 환경에 관한 기초지식을 폭넓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작은 일부부터 실천하는 생활습관을 기르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
- 서울 시도 시민 참여와 실천을 통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려면 Kids’ ISO 14000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조항문 에너지연구센터장(chohm@sdi.re.kr)

11. 주택 앞마당의 콘크리트 ‘퇴출’ (캘리포니아주 론데일市)

○ 2008년 1월 3일, 캘리포니아주 론데일 시의회는 주택 앞마당에 잔디 대신 콘크리트를 까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의결함.

- 앞으로는 진입로나 테라스를 만들기 위해 주택 앞마당에 콘크리트를 깔 경우 市 허가를 받아야 함.

- 이 조례가 시행되면 50% 이상의 주택 앞마당이 회색 콘크리트가 아닌 푸른 잔디밭이 될 것으로 기대됨.

(www.sacbee.com/114/story/545522.html)

12. ‘에코 챔피언’이 지속가능한 런던을 이끈다 (런던)

○ 런던市는 현장에서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 사업을 실천할 지역 환경지도자인 ‘에코 챔피언’을 15명 선정함.

- 민간단체, 학계, 공연예술계, 기업, 종교계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지역 지도자는 앞으로 1년간 런던을 더욱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실천 활동을 펼칠 예정임.

- 에코 챔피언으로 선정된 친환경 공연이벤트 회사 대표는 유기농으로 만든 지역생산 음료수와 재활용 컵을 사용하는 친환경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고, 에너지효율을 따져 이벤트 행사장을 설계·운영하는 등 참신한 아이디어를 실천에 옮기고 있음.

·본인의 사업뿐 아니라 공연예술 분야를 더욱 친환경적으로 변화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힘.

(www.bbc.co.uk/london/content/articles/2007/10/15/london_leaders_feature.shtml)

(www.londoncdc.org/londonleaders/default.aspx)

13. 민관의 지구온난화 방지사업 지원 (런던)

- 런던시는, 대규모 업체와 공공조직이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 'Green 500'과, 상업용 건물 소유주의 공동 친환경 건축 개선사업인 'Better Builders 파트너십'을 운영한다고 발표함.
 - Green 500 사업은 업체별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효율성을 평가해 업체별 배출 저감계획을 작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임.
 - 런던 소재 공공 및 민간기업 규모가 500위 안에 드는 대형업체를 대상으로 함.
 - 모범업체를 시상하고, 업체별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자문위원을 지원함.
 - 회원제로 운영되며, 초기 가입비는 3500파운드(약 670만 원)임.
 - Better Builders 파트너십은 런던 시내 주요 임대업자가 상업용 건물을 좀더 친환경적으로 개선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상호교환하고, 친환경 건물의 시장가치를 높이는 활동을 펼치는 사업임.
 - 회원제로 운영되며, 런던기후변화청과 런던개발청이 지원함.
 - 초기 가입비는 1만 파운드(약 1900만 원)로, 현재 런던교통공사와 같은 공공기관과 Hammerson社 등 총 6개 기관이 창립회원으로 가입함.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4873)

(www.green500.co.uk)

(www.lcca.co.uk)

14. 상업용 건물에도 CO₂ 저감계획 확대 적용해야 (영국)

- 영국 그린빌딩위원회(Green Building Council)는 2020년까지 주택이 아닌 상업용 건물에도 이산화탄소 저감계획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함.
 - 주요내용은 현재 주택에만 적용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주택 지침'(The Code for Sustainable Homes)을 상업용 건물에도 적용하자는 것임.

·이 지침에 의하면, 2016년까지 영국의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를 목표로 함.

- 이 지침을 상업 및 다른 용도의 건물에도 확대 적용해,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를 목표로 함.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 재생에너지 사용 지침 등 많은 의견이 제안되고 있음.

(www.regen.net/bulletins/Regen-Daily-Bulletin/News/773968/commercial-buildings-zero-carbon-2020-says-report)

15. 미래 도시환경의 새 청사진, ‘그르넬 환경 계획’ 발표 (프랑스)

○ 2007년 7월 6일 프랑스 ‘환경·발전·지속가능한 도시계획부’(MEDAD: Ministre de l’Ecologie, du Développement et de l’Aménagement Durable) 장관이 새로운 환경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그르넬 환경 계획’(Le Grenelle Environnement)을 발표함.

- 이는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 생태계의 다양성 보전, 건강을 위한 공해 예방을 목적으로 6개 작업그룹으로 나눠 정책 실행방안을 모색하는 계획임.

·6개 작업그룹은 환경변화 대응과 에너지 관리, 다양한 생태계와 자연자원 보존, 건강을 지키는 환경 만들기, 생산방법과 소비기능, 자연보호 기구 설립, 효과적인 자연보호 방안임.

·작업그룹마다 국가·지방자치단체·NGO·기업 등의 전문가 40명이 활동하고 있음.

- 이 중 환경변화 대응과 에너지 관리 그룹에서는 에너지 소비량 20% 감소, 재생에너지 사용량 20% 확대 등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실행계획을 세움.

·건물의 에너지 소비량 감소를 위해 에너지 사용법과 자가진단법 등을 교육함.

·친환경적으로 개선하는 공사에 재정을 지원함.

·친환경 주거지로 보수 및 개축 공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건축법을 개정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건축방식을 장려하는 새 법률을 제정함.

- 그르넬 환경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치·행정기구 개편과 지방분권화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음.
- 많은 도시전문가나 건축가가 고층 건축물을 선호하며, 환경단지에 대한 실험이 극히 제한된 인구만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극복해야 할 문제임.

(www.legrenelle-environnement.fr/grenelle-environnement)

16. 대기오염 정보를 알려면 애드벌룬을 보세요 (파리)

○ 파리는 15구에 있는 안드레 시트로앵 공원에 띄워놓은 애드벌룬에 2008년 봄부터 파리시내 대기오염 상태를 표시하도록 할 계획임. 이 애드벌룬은 1999년 설치돼 매일 시민 약 40만 명의 눈길을 끌어왔음.

- 이 애드벌룬이 정보도구로 바뀌어 매 시간 파리시내 대기질을 알려주게 됨.
- 애드벌룬은 전기발광시스템을 이용해 근처 교통량에 따른 대기오염 상태를 측정하고 이를 애드벌룬 아래쪽에 띠 모양으로 표시함.
- 도시 전체의 대기상태는 애드벌룬 내부의 컬러 전구를 이용해 오염 정도에 따라 녹색, 오렌지색, 빨간색으로 표시함.
- 시는 어린이에게 대기오염을 설명할 수 있도록 애드벌룬 근처에 전시 및 교육 공간을 마련할 계획임.
- 2006~2007년에 시가 시행한 대기오염 교육프로그램에 학생 7600명이 참여한 바 있음.

(www.paris.fr/portail/Environnement/Portal.lut?page_id=103&document_type_id=2&document_id=47934&portlet_id=823)

17. 페트병은 이곳에...자동회수기 설치 (도쿄도 아다치區)

- 도쿄도 아다치區는 ‘아다치 에코 넷’ 사업의 일환으로 슈퍼마켓 28개소에 페트병 자동회수기를 설치함.
 - 페트병 재활용에 참가하면 ‘에코 넷 포인트 카드’(환경 IC 카드)에 포인트가 쌓임.
 - 포인트를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좀더 많은 구민의 참여를 유도함.
 - ‘아다치 에코 넷 사업’은 2006년 3월에 수립된 ‘아다치區 환경교육 기본방침 실시 계획’의 중점 사업 중 하나임.
 - 구민, 학교, 상가, 각종 단체가 네트워크를 구성해 區와 협의하면서 환경활동을 벌이는 사업임.
 - 이 사업은 2007년 ‘용기포장 3R 추진 환경우수상’을 수상했음.



환경 IC 카드(왼쪽)와 페트병 자동 회수기(오른쪽)

(www.city.adachi.tokyo.jp/008/d06300043.html)

도 시 교 통

18. 버스로 출퇴근하는 공무원에게 무료 승차권 지원 (시애틀)

- 미국 시애틀市는 출퇴근 시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자 市 공무원에게 버스 무료승차권을 지원하자는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함.
 -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2008년에는 공무원에게 한 달짜리 승차권 가격의 절반 정도인 약 30달러(약 2만 8000원)를 지원함. 市는 2010년까지 한 달짜리 승차권 가격 전액을 보조할 계획임.
 -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려면 2010년까지 약 110만 달러(약 1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음.
 - 공무원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대기오염도 줄고 출퇴근 시 교통혼잡도 나아질 것으로 기대됨.
 - 市는 자전거 무료주차를 허용하고 물품보관함과 샤워장을 설치해 공무원의 자전거 이용을 독려함.
 - 야근으로 자전거나 버스 이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64km 구간에 해당하는 택시 요금을 지원할 계획임.

(seattlepi.nwsourc.com/transportation/342410_bus06.html)

19. 출퇴근 시간대 차량의 도심 진입 규제 강화 (브라질 상파울루市)

- 브라질 상파울루市는 출퇴근 시간대 차량의 도심 진입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차량 순번제 확대 계획을 검토 중임.
 - 현재는 상파울루市 중심가에서 하루에 차량의 20%만 운행이 금지됨.
 - 월요일에는 자동차 번호판 숫자가 1·2로 끝나는 차량, 화요일에는 3·4로 끝나는 차량 순으로 운행이 금지됨.
 - 운행 금지 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5~8시임.

- 市는 앞으로 홀·짝수제를 도입할 것을 검토 중임.
- 오전 7시~8시 30분 차량 번호판 끝 숫자가 홀수인 차량의 운행이 금지되며, 8시 31분~10시 짝수 차량의 운행이 금지되는 방식임. 오후 5시~6시 30분에는 홀수 차량, 6시 31분~8시에는 짝수 차량의 운행이 금지됨.
- 이 계획안은 현재 시의회 1차 투표를 통과한 상태며, 앞으로 2차 투표와 시장의 인준 단계가 남아 있음.

(g1.globo.com/Noticias/SaoPaulo/0,,MUL207559-5605,00-CAMARA+AMPLIA+RODIZIO+DE+VEICULOS.html)

20. 자전거 전용도로 유지·관리를 기업에 맡겨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市)

-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市는 자전거 전용도로 유지·관리와 신호등 설치 등 서비스 개선을 기업에 맡겨 시민의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 확대를 꾀하고 있음.
- 현재 리우데자네이루市는 약 140km 길이의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음. 기업은 도시 전 지역에 자전거도로 및 관련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음.
- 市 산하 도시계획기관에서 자전거 전용도로 보수 및 확충과 서비스 개선 계획을 발표하면, 참여 의사를 밝힌 기업은 이 계획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면 됨.
- 참여기간은 5년이며, 5년간 연장이 가능함.
- 지난 10년 동안 리우데자네이루市에서 자전거 이용률은 3배 증가함.
- 자전거는 경제적인 교통수단이고,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건강에 도움을 주며, 레저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장점이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짐.

(www.rio.rj.gov.br)

21. 자전거도로와 보행로를 대폭 늘려 (영국)

- 영국 ‘로터리 펀드’(Lottery Fund)는, 자전거도로와 보행로 설치를 추진하는 ‘서스트란 커넥트 2’(Sustrans’ Connect 2)라는 교통자선단체에 5000만 파운드(약 900억 원)를 지원함.
 - 서스트란 커넥트 2는 2008년부터 영국 전역 79개의 커뮤니티에 자전거도로와 보행로를 설치하게 됨.
 - 부족한 재원은 각 커뮤니티가 속해 있는 자치구에서 충당함.
 - 이 프로젝트는 앞으로 5년간 진행되며, 자치구로부터 1억 파운드(약 1800억 원)의 보조금을 확보한 상태임.
 - 자전거도로와 보행로 설치를 통해 지역 커뮤니티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서스트란 커넥트 2 관계자가 말함.

(www.regen.net/bulletins/Regen-Daily-Bulletin/News/773315/Sustrans-scoops-50m)

도시계획·건설·주택

22. 마을 만들기 ‘가이드라인’ 마련 (도쿄)

- 도쿄都是 ‘시나가와역과 다초역 주변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해 환경을 배려한 개발과 도시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마을 만들기 가이드라인’을 만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환경 모델도시 만들기: 도시열섬 효과를 억제하기 위해 바람 길을 배려한 건물 배치, 물과 녹지의 네트워크 형성, 이산화탄소 발생량 저감 등 환경을 배려한 다양한 조치를 취함.
 - 新거점을 창출하는 비즈니스·문화·거주 기능에 따라 토지를 이용하고, 운하 등 수변 환경을 배려한 경관 형성에 노력함.

·도쿄都의 동서를 연결하는 도로를 정비하고, 역전 광장 및 보행로 네트워크를 정비함.

- 개별 지구: 대규모 토지 이용이 예상되는 지구를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좀더 구체적으로 정비 방향을 제시함.

- 계획 감리: 우선적으로 정비를 도모하는 지구를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마을 만들기를 계획적으로 감리하고 추진함.

·타 도시의 개발제도를 활용해야 할 때는 이 가이드라인을 상위 계획으로 우선 적용해야 함.

(www.toshiseibi.metro.tokyo.jp/seisaku/shinagawa/index.htm)